

# 전남 목포지역 산업장 근로자들의 Physical Activity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김 광 자

목포 성골롬반병원

본 연구는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목포 시내에 소재하는 1개 도자기 회사 생산직 정원의 약 2분의 1인 392명의 근로자들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별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 음주량이 많았으며 건강인식도가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 체중의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체중이 높았고 결혼상태에 따른 건강인식도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으며 체중은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인식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체형별로 보면 마른체형, 복부비만형, 표준체형, 대퇴 및 상퇴비만의 순으로 흡연량이 많았고 복부비만형, 마른체형, 표준체형, 대퇴 및 상퇴비만의 순으로 음주량이 많았다.

감량의사는 체중이 높고 비만인식도가 높으며 흡연량이 적을수록 감량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은 흡연량이 많고 식사속도가 느릴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진단 결과는 무병이 280명, 성인병 보유가 33명, 기타의 질병이 89명이었는데 성인병 보유군은 흡연, 음주량이 많고 체중이 무병이나 기타 질병 보유군에 비해 높았으며, 건강인식도는 무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활동량의 인자별 평균은 근무 관련 인자가 평균 3.17로, 여가관련 인자는 평균 1.68로서 근무관련 신체활동은 보통 수준이지만 여가관련 신체활동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이고 있다.

근무관련 신체활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탐색되지 않았으나 여가관련 신체활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건강인식도, 성, 흡연정도의 네 개의 변수가 열거

된 대로 영향력이 컸으나, 이 네 변수의 설명력은 약 0.9%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장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예방차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보건교육에 앞서 여가 관련 신체활동에 관한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계절적 상황과 사회, 경제, 문화적인 상황에 적합하며, 근무관련 신체활동량과 여가관련 신체활동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신체적 활동량의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과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